

친절한 설명씨



낮선 세계를 상상하는 이들을 위한 SF 용어 가이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어떤 단어가 SF에서 처음 나온 거라면?
SF소설 및 SF영화에 처음 등장한 후 널리 쓰이게 된 표현을 모아 보았다.

○ 빨간 약

영화 <매트릭스>(1999)에서 조력자인 모피어스가 주인공 네오에게 건네는 두 알약 중 하나. 파란 약을 먹으면 행복한 현실을 그대로 누릴 수 있고,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의 말에 네오는 망설이다가 빨간 약을 먹고, 가상 세계 '매트릭스'의 절망적인 실상을 알게 된다. 흔히 '패러다임의 전환' 또는 '불편한 현실을 깨달아 안주하던 세계에서 벗어남(빨간 약을 먹음)'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 모노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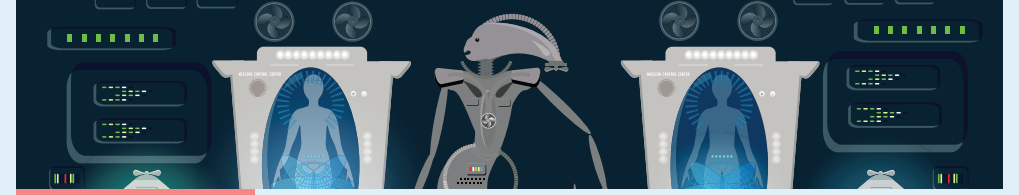
소설가 아서 클라크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함께 대본을 집필한 영화 <스페이스 오딧세이 2001>(1968)에 등장하는 외계 문명 기술의 결정체. '모노리스(Monolith)'는 외관이 검고 흡집 없는 돌기둥 모양의 물체로 묘사된다. 영화의 초반부에서 아직 원시 인류가 살아가고 있던 세계에 이 모노리스가 떨어져, 인류의 진화가 순식간에 촉진되는 묘사가 등장한다. '어떤 기능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촉매'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외계 슈퍼컴퓨터와 같은 이 신비로운 물체는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 시리즈,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에서 오마주한 바 있다.

○ 포스

영화 <스타워즈>(1977, 1편) 시리즈의 세계관 안에 흐르는 무형의 에너지원. 동양의 기(氣)와 유사하다. 일반인은 포스를 다룰 수 없으며 오직 '제다이'의 소양을 갖춘 사람들만이 포스를 쓸 수 있다. 제다이는 스타워즈 세계 내 평화를 수호하는 무사들이며, 포스로 움직이는 장비인 광선검(라이트 세이버)를 사용할 수 있다. 보통 '힘'이나 '(인물의) 기운'이란 뜻으로, 때로는 '포스가 그대와 함께 하길(May the force be with you)'이라는 스타워즈 내 인사법 그대로 사용된다.

○ 워프

워프(warp)는 TV시리즈 및 영화 <스타트렉>(1966, 1시즌) 시리즈의 세계관에 등장하는 항법의 이름으로, 우주선이 이동하고자 하는 장소로 빛의 속도보다도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이다. 우주 공간을 왜곡시켜 4차원적으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을 맞닿게 한 후 그대로 이동하는 원리다. FTL(Faster-Than-Light), 즉 초광속 추진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스타트렉 외에도 여러 SF물에서 등장한 바 있다. 판타지 등 다른 장르로도 전이하여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에는 흔히 이 이름이 붙었다.



○ 왈도(Waldo)

로버트 A. 하인라인의 SF소설 <스트레인저>(1992)에 등장하는 개념. 원격조작시스템(remote manipulator)의 구현으로, 떨어져 있는 인간 팔의 움직임을 모방하여 움직이는 로봇 팔을 말한다. 연구실이나 공장, 우주와 같은 환경에서 쓰인다. 영어에서 고유명사화 되었다.

○ 로봇 3원칙

아이작 아시모프가 <Runaround>(1943)라는 단편소설 속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로봇공학에 대한 원칙. 각종 SF 소설과 영화에 원용되었다. 특히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에서는 핵심 소재로 기능하기도 했다. 원칙 1, 로봇(도구)은 안전해야 한다. 원칙 2, 로봇(도구)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하며, 단 사용자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원칙 3, 로봇(도구)은 사용 도중 망가지지 않아야 하며, 단 기능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망가질 수 있다. 나중에 아시모프는 소설 <로봇과 제국>(1985)을 쓰면서 네 번째, 또는 0번째 원칙을 추가한다. 다른 세 원칙도 이 0번째 원칙을 절대 위배할 수 없다. 원칙 0,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가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류에게 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과학 3법칙

아서 C. 클라크가 그의 에세이집 <Profiles of the Future>(1963)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미래학 법칙이다. 이 중 세 번째 법칙이 창작자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된다. 법칙 1, 어떤 노년의 과학자가 무엇이 가능하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무엇이 불가능하리라고 한다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 법칙 2, 가능성의 한계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가능할 때까지 시도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 법칙 3, 충분히 발달한 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 무중력

무중력(Zero-gravity)은 예술가이자 SF작가인 잭 바인더(Jack Binder)가 1938년 '지구 중심에서의 중력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다. 이후 이 표현이 관념어로 굳어지면서 현재 우주의 상태를 묘사하는 적합한 개념이 되었다.

○ 사이버공간

20세기 말, 밀레니엄을 앞두고 인터넷이 보급되며 더욱 자주 쓰여 이제는 친숙한 단어인 '사이버', '사이버공간(Cyberspace)'이란 말은 원래 SF소설가인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이 만든 단어다. 그의 작품인 <불타는 크롬>(1982)과 <뉴로맨서>(1984) 속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

○ 테라포밍

지구가 아닌 우주 안 다른 천체(행성) 환경을 지구의 생태계와 같이 개조하여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작업을 일컫는 단어. SF소설가 잭 윌리엄스(Jack Williams)가 <충돌 궤도>(1942)라는 작품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⑩